

투데이 칼럼

공감을 표현하자

스 파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심리 움직임을 잘 파악해야 한다. 인간심리의 가장 기본적인 작용을 확실하게 파악해두면 어떤 장면에서는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승인욕구'라는 마음의 작용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거나 반대를 당하는 것에 불안을 느끼고, 마침내 견딜 수 없어하는 마음의 메커니즘이 있다. 이점에 주목하는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은 심리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언급한 '승인욕구'라고 하는, 인간이 가진 기본적인 작용을 영소의 대화에서 활용하면 상대방에게 좋은 인상을 전할 수가 있다.

사람은 누구나 '입버릇'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입버릇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아니 그것은', '그렇지만', '그러나',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만', '저기 있잖아', '대체로', '나도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란 말이지?', '잠깐 기다려봐', '그런 게 아니라', '그건 그렇지만', '절대 아니야', '알지도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등의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말을 하고 있는 중간에 자신이 하고 싶다는 충동에 이끌려 무의식중에 말을 해서 상대방의 말을 중단시켜 버리는 말들이다.



김 양 옥

전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교수

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자신도 싫어하는 반복성의 원리'라고 하는 단순한 메커니즘이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좋아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한 나쁜 입버릇을 봉인하는 길 외에는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하하하, ~그렇구나.', '와, ~그랬구나.', '확실히 ~군요.', '알았습니다.'라고 하는 맞장구로 상대방의 말을 받아 들여야 한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이 말하는 것에 일정한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분이 좋다. 게다가 '공감'을 표현할 것일 뿐 상대방의 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공감의 스키치로 효과적인 언어생활을 하여 개성이 뚜렷한 개성 소비시대에 의사소통의 달인이 되어 정확한 의사전달을 할 때 언제나 부정적인 생각이나 행동을 막고 밝고 즐거운 생활을 할 수 있다.

사설

러시아 디폴트 위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디폴트가 임박했다는 지적이 많다. 디폴트는 국가 규모의 (채무불이행)을 뜻하는 말이다.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 이자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국가 부도'를 말한다.

러시아의 마지막 디폴트는 1917년 볼셰비키 혁명 당시였다. 러시아의 이번 디폴트 위기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쏟아진 서방 국가의 제재 때문이다. 러시아는 석유, 가스, 광물 매장량이 막대한 자원부국이다.

러시아는 자국에 적대행위를 한 국가의 채권자들에게는 애초 발행된 통화와 상관없이 무조건 무분화로 상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국제 금융기관들은 계약상 이자는 달러로만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러시아가 무분화로 빚을 상환하면 디폴트로 간주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국제 원리금 상환 불이행은 국가가 외국 투자자의 돈을 때어 먹는 것이다. 나라 전체의 신용도가 바닥으로 떨어진다. 소련 붕괴 후 러시아가 국제 대외 채

무 지금 불능 상태에 빠진 건 처음이 아니다.

아시아 금융위기의 여파로 석유를 비롯한 원자재 수출이 타격을 입고 해외 투자유입도 급감했던 1998년에도 무분화 채권에 대한 대외지불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했다.

러시아는 2015년에도 모라토리엄 위기에 다가갔다. 푸틴의 러시아는 서방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2014년 크림반도를 러시아에 귀속시켰다.

러시아는 이번에 우크라이나 수도까지 침공하는 전면전을 감행했다. 경제제재 수위도 극단화할 수밖에 없다. 러시아 공식 디폴트는 향후 30일간 부여되는 이자 지급 유예기간 후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달러당 100센트 내외로 거래되던 러시아 달러 국채는 이미 최저 5센트에 거래될 정도로 휴지 취급을 받고 있다. 푸틴의 도발은 러시아 국가신용도의 심각한 훼손을 몰고 왔다.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셈이다.

부안 민중사 위패 봉안

최근 김장기 부안군의회이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민중사(愍忠祠)에 봉안된 함평이씨 후손들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민중사(愍忠祠)에는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호벌치에서 순절한 의병 146명의 영령 신위가 있다.

호벌치는 정유재란 때 부안지역 의병 3천명이 왜군과 싸워 전사한 곳이다. 민중사에는 정유재란 당시 의병 146위 위패가 봉안되어 있다.

그러나 도곡 이우(함평이씨) 및 부인 부안김씨, 봉사 유희방(고흥유씨), 해운 김홍원(부안김씨), 채춘봉(평강채씨), 권대봉(안동권씨) 의병 등은 지금까지 민중사에 봉안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11월 행정 사무감사 때 이를 지적했다. 그리고 2022년 1월 다섯 분의 위패가 민중사에 안치됐다. 후손들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감사패를 전달했다.

도곡 이우의 부인 부안김씨는 여성이어서 민중사에 모실 수가

없었다. 부안군은 지난 2009년 상서면 감교리 호벌치 전적지에 민중사(愍忠祠)를 준공하고 추모제를 올렸다.

1597년 정유재란 당시 왜군은 선조 25년(1592)에 일어난 입진왜란 때와는 달리 주력부대를 전라도에 투입했다. 왜군들은 비닷길(해로:海路)로 침포에 상륙하여 부안으로 진격했다.

의병 채홍국은 의병 92명과 함께 왜군을 무찔렀다. 그는 다시 의사 38명을 추가하여 300여 명이 호벌치에서 싸우다 전사했다. 현재 1965년에 세운 전적지비(碑)와 일본 오카야마현 비젠사에서 옮겨온 코무덤이 있다.

호벌치 전적지는 1976년 전라북도 기념물 제30호로 지정됐다. 호벌치 전투에는 지역 선비들과 농민, 천민, 승려 계층이 하나로 뭉쳤다.

이곳은 선열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되새길 역사적 현장이다. 민중사가 많은 사람들이 찾을 수 있는 역사 교육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프랑스 대선, 마크롱과 르펜 후보 결선투표 예측



10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의 마린 르펜 대통령 후보 선거 본부 화면에 르펜 후보와 에마누엘 마크롱 현 대통령의 영상이 비치고 있다. 프랑스 여론조사 기관들은 이날 대선 투표 직후 중도 성향의 마크롱 대통령과 극우 성향의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할 것으로 예측했다. 프랑스 대선은 1차 투표에서 과반 획득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러시아군 공격으로 구멍 뚫린 교량



10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키이우의 미카로우 마을에서 자동차 한 대가 지난주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파손된 다리 위를 지나고 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